

글 이원규(미내사 클럽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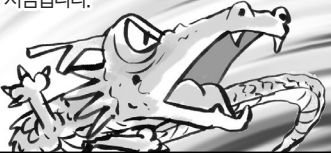
그림 한정우(현재 학습만화와 명상만화를 작업중, 행복한 만화를 휘두삼아 '호시우보란 팀'으로 작업중)

건괘 3



구이의 호사는 “현룡재전(見龍在田)이니 이견대인(利見大人)이니라”입니다. 용의 덕이 나타나는 때이니 대인을 만나면 그 덕이 펼쳐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구이의 현룡재전은 용의 속성인 종일건건(終日乾乾: 쉬없이 씩씩하게 생명의 힘을 사용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종일건건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건실하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도정에서 만나는 험난함을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즉 험난함을 만났다고 종일건건이 멈추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의 속성인 종일건건이며 생명력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용은 일상을 믿음과 근면으로 하지만 위험을 안다고 하였습니다(龍信龍謹知險). 평상시 말을 믿음있게 하고, 행동도 삼가며, 간사함을 막고 정성을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종일건건의 속성은 아무런 이유가 없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이유가 있어야 움직입니다. 즉 무엇을 얻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성공을 하기 위해,
자유를 얻기 위해 내 생명의 힘을 사용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일건건은
그러한 '~'을 위해라는
생각이 없어도 종일건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이 가진 생명력
자체입니다.



이유가 있어야만 종일건건 하다면 그는 용이 아닙니다.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만일 아무런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인간은
좌절합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쓴
빅터 프랭클은 그 악조건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를 자신이 그러한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만약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용은 이 세계에서 그의 종일건건의 속성의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도 그는 그저 종일건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본질인 생명력의
속성입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들은 아무런 이유
없이도 하루종일 에너지가 넘칩니다.
크런데 이제 성인이 되면 그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만 생명의 힘을 쓸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무언가를 '위해서만'
에너지가 나오는 것이지요.
그는 이제 아무 이유없이 무언가에
열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힘을 '발견'한다는 것은 바로 아무런 이유없이도
종일 에너지를 내어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진정한
생명력의 발견자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도 무언가에 자신의
정성을 모두 쏟아 넣을 수 있는 이, 그가 용의 종일건건을 얻은
자입니다.



현룡재전은 이제 그 종일
건건의 속성이 현상계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드러나는 현상 속에서는
언제나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멈춘다면 그는 또한 용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현상
속의 함함을 알면서
(知險) 동시에 증일간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증일간건은 물리적으로 말하자면 생명력
그 자체인 혼돈에너지이고, 현상의
험난함을 뚫고 드러나는 것은 질서의
발견과 같습니다. 이렇게 혼돈으로부터
질서가 나타나는 것은, 끊임없는
양자세계의 에너지활동인 양자적
혼돈으로부터 패턴 있는 에너지 결집인
질서가 나타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늘 험난함을 넘어가야
합니다. 용이 위험을
안다(知險)는 것은 그가 이미
험난함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안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리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다는 것은 경험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구이(九二)는 이미 무수한 험난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용이 된 것입니다.



험난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공'만 한 사람은 실패에 대한
내성이 없어 약간의 좌절을 경험해도 곧 의기소침해져서
괴로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전혀
위험하지 않는데도 스스로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험난함을 '아는' 이는
결코 스스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
움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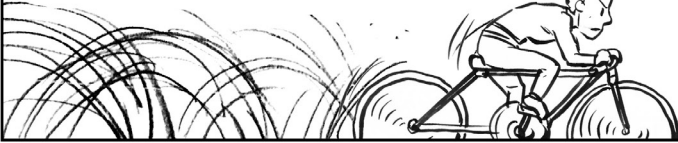
어떤 질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분명한 규칙에서 나오리라 믿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현상적 질서에는 당연히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적 세계로
들어가면 무질서한 양자적 혼돈
뿐입니다. 그리고 신비롭게도 그
혼돈에서 질서가 나타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이유도 규칙도
없습니다. 그저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 중첩과 간섭, 공명을
통해 굳어지고 질서화하는 것
뿐이지요. 오직 에너지 자체일
뿐인 양자적 혼돈상태에서 어떤
질서가 태동합니다.



중첩과 간섭이 증폭으로 이어지며 특정 형태를 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복과 순환을 통해 일어납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행함과 같은 것이지요.



이는 더 많은 개미들이 먹이를 찾은 한 개미의 먹이 발견 장소로 점차 모여드는 것과도 같습니다.



처음 개미집을 출발한 먹이사냥 개미들은 뿔뿔이 흩어져 먹이를 찾아나섭니다. 산지시방으로 혼돈스럽게 퍼져나간 개미들은 어디에 무슨 먹이가 있는지 모르므로 그렇게 흩어져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개미가 먹이가 있는 곳을 찾아 그것들을 부지런히 나르기 시작합니다. 그는 특별히 자신이 먹이를 찾았다고 다른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다른 개미들도 서서히 그가 먹이를 찾은 장소로 향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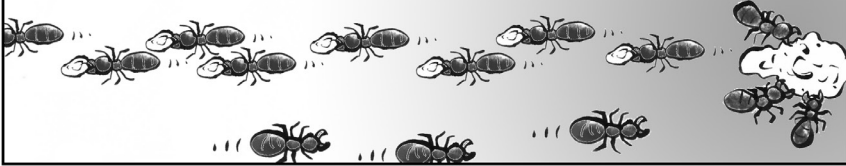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해질까요? 그것은 관성을 통해서입니다. 그가 집에서 먹이가 있는 장소로 자주 왔다갔다 하자 그 길에 개미의 흔적들이 남기 시작합니다.



그 같은 다른 개미들에게 더 익숙한 냄새, 형태를 느끼게 하고 다른 개미들 몇몇이 그 길을 따라가다가 역시 먹이를 발견하고 같이 나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길은 더 많은 익숙한 특징을 띄게 되고, 더 많은 개미들이 이 길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 자체가 개미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여 많은 개미들이 이 길을 하나의 '먹이길'로 삼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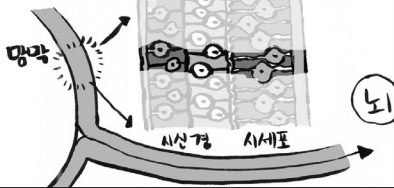
이와 똑같은 현상이 두뇌에 정보가 쌓이고 패턴이 형성될 때도 일어난다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신경심리학자 도널드 헵(Donald O. Hebb)은 '행동의 구조, 신경심리학 이론'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신경망 행동의 윤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망막에 어떤 빛 자극이 들어오면 그것이 전기신호로 바뀌어 특정 뉴런들을 지나가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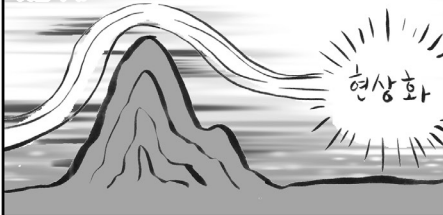
그런데 그 자극이 쉬지 않고 자주 들어오면 이 특정 신경세포들을 지나가는 화수가 더 빈번해지면서 이 경로에 있는 신경세포들의 연결강도가 강해져, 그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고 '익숙한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익숙한 길은 뉴런망에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것은 기억과 학습의 기본 메커니즘 중의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무질서한 신경망 신호에 하나의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행하는 것(終日乾乾). 그것이 험한 벽을 넘어 현상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즉 구이는 종일건건의 속성을 끼치고 현상을 만나 쉽없이 행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이루고 뜻한 바를 현상화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몽재전이며, 이 쉽없이 행하는 구이의 덕이 현상계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대인을 만나면, 크게 쓰여 세상에 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